

도시재생 시범 지역의 공간 구성과 공간적 특징: 전주시 노송동 사례1)

Spatial Configuration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Pilot Project Area of Urban Regeneration : the Case of Nohsong-dong in Jeonju

한유석(Han, Yu Seok)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 박사과정

목 차

- I. 들어가며(개발에서 재생으로)
- II. 전주시 노송동 TB지역 개관
 - 1. 지리적 위치와 지형
 - 2. 근대적 공간으로의 재편과 그에 따른 경관 변화
 - 1) 근대적 공간으로 재편된 노송동
 - 2) 상징적 건축물의 이전과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노송동의 경관 변화
- III. 각 공간의 특징과 시간에 따른 공간 구성 변화
 - 1. 각 공간의 특징
 - 1) 노인주거지역과 근린상가
 - 2) 선미촌(집창촌) 일대
 - 3) 학교와 경로당
 - 2. 시간에 따른 공간구성
- IV. 나오며

1) 본고는 <TB지역 역사문화자원조사>의 일환으로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수행된 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 연구의 대상지역인 노송동 일대를 방문하여 추가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정 및 재구성하였다.

초 록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도시들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개발이라는 가시적 성과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역사도시로서의 가치가 훼손된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전면 철거에 의한 재개발은 기존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상당 부분 파괴하였고, ‘아파트공화국’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도시의 외관을 모던한 양식의 도시로 변모시켰다. 이는 도시의 지형을 가독성 있는 공간으로 획일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도시계획 양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면 철거와 획일적인 공간 구획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대대적 수정을 통해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본고는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 지역인 전주시 노송동의 공간 구성과 공간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다. 그렇다면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의 공간 구성과 공간적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 지역의 공간성과 지역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노송동과 같은 도시재생 시범지역은 거대한 도시계획에 따라 구획된 공간이 아니라, 시대적 층위를 형성하며 조금씩 조금씩 덧대어가며 지어져 있는 여러 가옥들이 하나의 균을 이루며 나름의 역사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시대적 층위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스토리는 결국 지역의 특성으로 귀결되기에 올바른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가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공간성과 지역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다.

주제어: 도시재생, 노송동, 공간 구성, 공간성, 경관 변화

Abstract

During the industrial era, Korean cities experienced remarkable quantitative growth. This means historic cities' values, which exist behind the scene of visible developmental achievement, were eroded by developmental process. Urban redevelopment by demolition undermined historic and cultural values of existing cities, and drastically changed the surface of the cities enough to be called 'the republic of apartment'. This resulted in the standardization of urban space with readability. However, urban planning in Korea seems to be changed recently. In other words, previous approach to urban redevelopment focused on whole

demolition and unified zoning does give place to totally different urban regeneration that tries to preserve historicity and cultural values of cities, and by doing so, allows indigenous residents to have their lives within their own space.

This paper is a study on spatial configuration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Nohsong-dong in the City of Jeonju, which is the pilot project area of urban regeneration. We can ask why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on spatial configuration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wher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proceeding. This is because, without figuring out the spatiality and locality of a certain region, it is impossible to proceed regeneration project sui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Urban regeneration area such as Nohsong-dong was not formed by urban planning or grand project. Rather, it is urban space with its own historicity which was accumulated as each houses or buildings formed a group through the past, and this historicity leads to the area's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this paper argues that the first step of desirabl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an in-depth consideration of spatiality and the area's characteristics.

Subject key words: urban regeneration, Nohsong-dong, spatial configuration, spatiality, change of urban landscape

I. 들어가며(개발에서 재생으로)

앤디 메리필드(2005: 19)가 이야기하듯 현대 도시는 사회적 삶이 강화되는 곳이라기 보다 사회 그 자체가 분열되는 곳인지도 모른다. 근대적 시공간 압축 과정에서 개발과 재개발을 통해 도시화가 진행되고, 모던한 양식의 네모반듯한 건물들과 격자형 도로망이 도시를 관통하면서 도시는 더욱 획일화된 형태로 변모해왔다. 그 속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도시라는 섬 안에 갇혀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그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갈 뿐이다.

한국의 도시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도시들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개발이라는 가시적 성과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역사도시로서의 가치가 훼손된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전면 철거에 의한 재개발은 기존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상당 부분 파괴하였고, '아파트공화국'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도시의 외관을 모던한 양식의 도시로 변모시켰다. 이는 도시의 지형을 가독성 있는 공간으로 획일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제임스 C. 스콧, 2010).

현재 한국의 도시 경관은 ‘하이 모더니티(High Modernity)’라는 용어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근현대 시기 도시정책 입안자들의 여러 대응과 노력의 결과로서 20세기의 급격한 변화의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했던, 지난 시기의 역사적 자산이면서 동시에 그 의미와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여러모로 되돌아보아야 할 역사적 실체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앙리 르페브르’(2011: 445)가 코르뷔지에적(Corbusierian) ‘주거용 기계들’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던 것처럼, 20세기의 시간 속 한국의 도시공간은 한국판 ‘브라질리아’이자, 한국판 ‘찬디가르’의 형태로 변모해왔고, 어느 정도 ‘르코르뷔지에’의 유토피아(?)에 근접한 형태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한국의 도시계획 양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면 철거와 획일적인 공간 구획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대대적 수정을 통해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개발을 시행하려 노력하는 중이다. 이는 역사성을 지닌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과 새로운 주거 유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한국의 도시계획에 반영된 한 사례로 전주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전주시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노송동과 노송천 일대를 주요 무대로 진행 중이다.²⁾ 전주시의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이하 TB) 지역인 전주시 노송동 지역(집창촌이 위치한 지역)과 노송천 일대에 전면 철거에 의한 재개발 방식이 아닌 도시재생적 관점에서 지역의 형태를 보존하고, 기존 역사적 형태를 복원하려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인 제이콥스가 그토록 열망했던 도시공간의 다양성과 창조성, 일상성을 회복(Jane Jacobs, 1992)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여겨진다.³⁾

전술하였듯이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⁴⁾가 진행되는 지역의 공간 구성과 공간적 특성에 대해

2)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명에 의하면, 전주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비전은 “그린&휴먼시티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 도시창출”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첫째, ‘노송천 일대의 중앙시장 문화재생’, 둘째, ‘노송천 복원&그린 인프라 구축’, 마지막으로 본고의 조사지역인 노송동 노인주거지역과 관련된 ‘지속가능 주민친화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천사마을 경제 재생’이 그것이다. 이 중 세 번째 목표는 커뮤니티를 활용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것으로 그 추진방향은 첫째, 주민주도 주거재생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둘째,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경제적 재생 도모, 셋째, 자연자원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그린 시티 구축이다(이상 각주의 내용은 <http://jeonju.kourc.or.kr> 사이트를 참고한 것임).

3) 변은주(2012: 14~15)에 의하면, 제인 제이콥스가 주장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 인간의 활동이다. 대도시에서 낮은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과 활기를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눈요기를 하며 상점가를 거니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동네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활동들로 도시 근린을 채우는 것이 바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다.

4)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에 그 의미를 규정짓기는 쉽지 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 지역의 공간성과 지역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노송동과 같은 도시재생 시범지역은 거대한 도시계획에 따라 구획된 공간이 아니라, 시대적 층위를 형성하며 조금씩 조금씩 덧대어가며 지어져 있는 여러 가옥들이 하나의 군을 이루며 나름의 역사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시대적 층위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스토리는 결국 지역의 특성으로 귀결되기에 올바른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가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공간성과 지역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다.⁵⁾

II. 전주시 노송동 TB지역 개관

1. 지리적 위치와 지형

후삼국 시대 건훤이 전주에 도읍을 정할 당시, 노송동 일대가 건훤성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노송동은 역사의 수면 위로 등장한다. 따라서 노송동에 이미 오래 전부터 기린봉 자락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규남·이길재: 184).

오래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던 노송동은 기린봉의 산사면 아래, 전주시의 구도심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조사지역인 TB지역 내 노인주거지역은 급하고 완만한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로를 경계로 '선미촌'⁶⁾과 마주보고 있다. 노인주거지역은 1층과 2층으로 된 주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새로 지은 원룸들이 들어 서 있다. 상권의 쇠퇴로 인해 노인주거지역 내 근린상가는 거의 쇠퇴한 상황이며, 남북로 도로변에 선미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린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노인주거지역 주변에는 2개의 재래시장과 2005년에 개장한 대형마트가 들어 서 있는데, 이러한 대형마트의 입점은 근린상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남북로에서 구 KBS 방향으로 가다가 우회전하면 모래내 시장이 위치해 있고, 기린로를

일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최근에 발간된 도시재생사업단(2012)에서 엮은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에서 구분한 일례를 참고하면, 세계 각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역사 지역·지구를 활용한 도시재생, 둘째,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도시재생, 셋째, 커뮤니티를 활용한 도시재생, 넷째, 지역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 중 이 연구의 조사지역인 전주시 노송동 노인주거지역은 커뮤니티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형태이다.

5) 도시재생 프로젝트 지역의 공간성과 지역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만큼 지역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재생 방식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실제적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의 본래적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공간성과 지역성에 초점을 둔 연구이기에 지역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된 부분은 간접적인 분석대상 자료로서 일반서술 안에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6) 전주시청 건너편에 있는 집창촌을 '선미촌'이라 부른다.

지나 팔달로 안쪽으로 중앙시장이 위치해 있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전주고등학교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데 노인주거지역에서 가장 거리가 가깝다.

전술하였듯이, 노송동 노인주거지역은 건훤성터에 인접해 있었으며 이후 전주부성의 근교에 위치해 있었기에 이른 시기부터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던 지대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지형의 마을 구조가 형성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이다. 전쟁 이후 피난민촌으로 형성된 것이 주요 계기가 되었는데, 1954년 진북동에 있던 제2피난민수용소 난민 320세대 1,600여명이 구 형무소 옆(현 노송동)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피난민촌이 형성되었다. 당시 언덕 경사면에 판자촌이 형성되었고, 이후 무허가 판자집들이 벽돌이나 콘크리트 형태의 구조물로 바뀌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북로를 사이로 노인주거지역과 마주보고 있는 선미촌은 한국전쟁 이후 성매매 여성들이 전주역 근처로 모여들면서 형성된 것이다. 역 주변에 형성된 싸구려 여인숙과 매매춘 업소들이 점차 확대되면서 한때는 80개 업소가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현재는 대략 40여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며, 집창촌의 존재는 건너편에 위치한 노인주거지역에 젊은 인구의 유입을 막는 주요 요인이다.



조사지역 범위 표시 <출처: 국토해양부
의 2차 2011: 1>

조사지역 전경 사진

2. 근대적 공간으로의 재편과 그에 따른 경관 변화

1) 근대적 공간으로 재편된 노송동

노송동이라는 지명은 일제시대 지명인 '노송리'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송'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은 늪은 소나무가 많았던 것에서 기인한다. 노송동 지명과 관련해 노송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는 설명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노송동 명칭 변화

1914.10. 1	전주면을 설치, 동정리, 신동리, 삼리 일부와 용전면 기봉리, 부동면의 오계리·육계리 병합하여 이동면 노송리 편입
1915.12. 6	이동면 노송리에서 전주면 노송정 변경
1940.11. 1.	이동면 인봉리가 전주부 인봉정으로 전주부 편입
1946. 7.10	전주시 노송동으로 변경
1957.12.12	전주시 중노송동, 남노송동, 서노송동 분동
1970. 7. 1	중노송동을 중노송 1가동, 중노송동 2가동으로 분동
1994. 8. 8	중노송 1가동, 중노송동 2가동을 중노송1동, 중노송2동으로 명칭변경
2005. 8. 1	중노송1동, 중노송2동, 남노송동, 서노송동을 노송동으로 통합

그렇다면 노송동이 전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는 근대라는 시공간 속에서 전주라는 도시가 개발되는 과정과 연관된다. 후백제 견훤이 터를 정하고 산성을 쌓은 이후 자연 취락으로서 존재하던 노송동은 근대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전주의 주요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1907년 호남선 완공 이후 호남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식량 수탈을 위해 일제는 전주와 호남선을 연결하는 경편철도를 건설하였다. 1914년부터 1927년까지 사적 자본이 운영하던 경편철도는 1927년 철도국에 매수되면서 국유철도가 되었고, 이는 경성과 전주를 잇는 경전북부선이 개통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1929년 고사동에 있던 전주역사가 노송동 현 시청사 자리로 이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부근이 활성화되지 못하자 중심 시가지와의 원활한 연계에 의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문에서 역에 이르는 386m의 도로를 폭원 22m로 개설·포장했다(김현숙 2004: 167). 이에 따라 북문을 중심으로 역전통이 형성되어 북문밖장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1930년대 이후 번성하였다(ibid: 172).

노송동이 전주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된 또 다른 이유는 노송동 일대에 여러 공립학교들이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노송동 인근에 위치해 있던 학교의 현황을 표7)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아래 표는 『전주부사』의 내용들을 토대로 편집한 것이다.

<표 2> 1940년 노송동 인근 학교현황

학교명	위치	개교일	현 학교명
	주요 연혁		
전주남공립중학교	노송정 180번지	1937년 4월	전주남중학교 전주제일고등학교
	전주공립중학교로 개교, 51년 남중학교 및 전주상업고등학교 분리, 남중학교는 92년 이전		
전주북공립중학교	노송정 488번지	1919년 8월	전주북중학교(폐교)
	전주고등보통학교 개교, 51년 전주고등학교 개칭, 1970년 폐교		
전주공립농업학교	노송정 518번지	1910년 5월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전주농림학교 개교, 51년 전주농업고등학교 개칭, 06년 개칭		
전주공립고등여학교	노송정 10번지	1924년 4월	폐교
	24년~32년까지 전북공립고등여학교와 교장이 같음		
전북공립고등여학교	노송정 98번지	1926년 5월	전주여고등학교
	전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개교, 37년 기전여학교 수용, 51년 개칭		
전주풍남공립소학교	풍남정 102번지	1919년 11월	전주풍남초등학교
	전주여자공립보통학교 개교, 41년 전주풍남국민학교 개칭		
전주상생공립국민학교	태평동 64번지	1897년 7월	전주초등학교
	전라북도 공립소학교(양사제)개교, 19년 여자부 전주여자공립보통학교로 분리, 25년 이전, 50년 개칭, 61년 진북국민학교 분리, 71년 화산국민학교 분리		

이처럼 당시 대부분의 학교들이 노송동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많은 학교들이 위치함으로써 노송동은 교육의 중심 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이유는 일본인들과 지역 유지들과의 힘겨루기에서 기인하였다. 일본인들이 현재의 풍남동과 교동 일대에 자신들의 마을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당시 향교를 중심으로 많은 한옥들이 들어서 있던 이 일대의 땅을 지역 유지들이 일본인들에게 팔지 않았다. 이에 일본인들은 교동에 들어가기 위해 노송동 일대에 공립학교를 건립하여 교동 일대 주민들을 노송동으로 이주시키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송동 일대에 많은 학교들이 건립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이후 노송동은 교통의 중심지이자 교육의 중심지로서 전주의 주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전주역 주변에 형성된 집창촌,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상대적 소외 등으로 인해 현재는 ‘낙후된’ 공간이자 ‘오래된’, ‘노후화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상징적 건축물의 이전과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노송동의 경관 변화

도시 공간 속 역사적 건축물들은 인공 경관을 형성하고 그 공간을 특징짓는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징적 건축물들을 통해 과거를 떠올리고 그 경관을 통해 기억하는 방식을 습득한다. 이-푸 투안(2011: 264)은 “어떤 대상들(건축물)은 영겁의 시간동안 장소로서 지속되며 특정 문화보다 오래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도시 공간의 건축물은 기억을 매개하는 이정표이자 연결 통로로서 기능한다.

한편 노송동은 전주의 행정동 중 하나로서 주택가와 근린 상가로 구성된 평범한 지역이다. 단순한 도시 근린 공간으로서 주택가와 상가, 여러 건물로 이루어진 별 특색 없는 공간이다. 그러나 구 전주역의 현 전주역으로의 이전과 홈플러스라는 대형마트의 입점 등 여러 의미 있는 건축물의 유입과 이전은 노송동의 경관을 변화시켜 왔다. 또한 도로 개통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경관이 변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가시화된 시간으로서의 장소, 즉 지나간 시간의 기념물로서의 장소(ibid: 287)가 특정 세대(구세대)에게는 여전히 기억의 매개물로 존재함을 의미하며, 특정 세대(신세대)에게는 구세대를 통해 전수된 예전 노송동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노송동의 상징적 건축물의 이전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도시 경관이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의 기억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구 전주역의 이전에 따른 시청의 현 위치로의 이전, 상수도 개설 및 소방도로 건설, 홈플러스의 입점과 관련된 도시 경관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구 전주역의 우아동으로의 이전과 시청의 현 위치로의 이전

고사동에 있던 전주역사가 1929년에 노송동 현 시청사 자리로 이전한 이후 현 시청 자리는 사람과 물품이 나고 드는 역전통으로서 기능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 전주역 이전 계획이 세워지고 1978년에 우아동으로의 이전 계획이 발표된 후 1981년 우아동에 새 역사가 신축되기에 이른다. 김현숙(2004: 178)에 의하면 “전주역사의 이전은 교통계획 측면에서 기존의 전라선 철도가 도심에 관통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문제의 완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역사를 시의 동측 경계부 가까이로 이전하고, 이곳에서 팔달로에 연결되는 광로 백제로를 계획하였으며, 역전 광로변에 상업지역을 배분하는 효과를 냈다”고 한다. 또한 전주역사의 이전이 도시구조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철도역을 경계로 북서방향으로만 성장해 가던 도시발전축을 동서방향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제로변에 업무지구를 지정하여 공공업무 기능 유치를 의도함으로써 동서발전축의 개발가능성을 한층 높인 계획(ibid: 같은 쪽)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주역이 이전하기 전의 풍경은 어떠했을까? 김규남·이길재의 『지명으로 보는 전주 백년』에서 당시 전주역 부근의 풍경을 확인할 수 있다.

전주역사 앞에서 서노송동으로 넘어가는 길은 현 코아백화점에서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 건널목과 조그만 다리를 건너 지금의 서노송동 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전주역에서 남노송동에서 내려오는 천변을 따라 올라가다 건널목을 건너 전주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그 사이는 전주역 건물과 전라선이 가로 막혀 있었고, 기차길 너머로는 개천이 흐르고 있어서 두 지역은 서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전주역 뒤로 선미촌이 자리잡게 된 까닭도 전주역과 기차길을 경계로 이 지역이 시내 중심부와 차단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이곳에 뚝너머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도 기차길이 두 지역을 가로막는 독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전주역 주변은 넓은 광장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전주역 북쪽 기차길 주변에는 연탄 공장이 길게 자리잡고 있었고, 전주역 역사 부근에는 대한통운 건물과 창고가 있었다. (중략) 전라선과 전주역이 지금의 위치로 옮겨가 전라선 자리에 기린로가 개설되고, 전주역에 전주시청 청사가 조형미를 갖추고 세워지게 된 후, 기린로 주변과 전주시청 주변에는 빌딩들이 속속 들어서게 된다. 또한 전주역 앞으로 흐르던 개천도 구 역사 앞뿐만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모두 복개된 데다가, 중앙시장과 팔달로 사이에 코아백화점이 들어서면서는 전주 제일의 백화점으로 자리잡는다(김규남 · 이길재 2001: 193~194).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전주역의 이전으로 선로가 변경되면서 그 자리에 기린로가 개설된다. 기존 전주역 건물과 전라선, 개천 등에 의해 서노송동사무소(현 전주 문화재단) 방면과 전주고등학교 방면이 차단되어 있었는데, 기린로가 개설되고 뚝이 허물어지면서 선미촌도 도로변에 위치하게 된다. 이후 시청이 들어오면서 일대에 여러 빌딩들이 건축되었고, 현재와 같이 대로변 양옆으로 빌딩 숲을 이루는 경관으로 변모하였다.

전주역이 있을 당시에 주변의 경관은 숙박을 위한 허름한 여관과 선미촌으로 대표되었다. 역을 끼고 숙박업소와 집창촌이 발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시청이 들어선 현재까지 여전히 비슷한 경관을 유지하고 있음이 놀라울 따름이다. 기린로변을 따라 여전히 선미촌 성매매 업소들이 밤이면 불을 밝히고 있고, 미담교회 근처 언덕부터 구 KBS로 올라가는 언덕 전 사거리까지 여전히 여관들이 남아 있어 예전에 이 일대가 역 근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시청이라는 행정기관의 이전으로 인해 집창촌이 폐쇄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될 거라 여겼던 지역민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물론 시의회를 비롯해 몇몇 행정기관과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선미촌의 존재는 지역 이미지에 큰 손상을 끼치고 있다. 선미촌을 지칭하던 ‘뚝너머’가 시청의 현 위치로의 이전 이후 ‘시청뒤’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시청뒤’라는 단어는 시청이라는 행정기관과는 전혀 무관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며, ‘시청뒤’에서 사람들은 ‘시청’이라는 이미지보다 ‘뒤’라는 말에 방점을 두고 선

미촌을 떠올린다.

그렇지만, 시청의 이전은 분명히 주변 인공경관을 바꿔 놓았다. 현재는 제방길과 철로로 기억되던 전주역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넓은 기린로변을 따라 여러 빌딩들이 늘어 선 경관으로 변모했다. 전주로 찾아들고, 전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로 붐비던 공간이 이제는 전주에 사는 사람들이 민원을 보거나 근처에 일을 보기 위해 오는 일상의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전주 시청의 현 위치로의 이전은 다른 행정기관들의 유입을 가져왔고, 이는 이 지역이 도심 내 행정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이 역이 있던 곳에서 행정기관이 위치한 곳으로 변화하였다. 여기에 2005년 까르푸(현 홈플러스)가 근처에 들어서면서 대형유통마트를 찾는 사람들과 차량들의 모습이 도시 경관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 상수도 개설 및 소방도로 건설

동네 공동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 먹고 함께 빨래를 하던 풍경은 이제는 사진 속에서나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노송동에도 공동우물의 터가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1960년대 경 상수도가 개설되고 이후 전면적으로 수도가 보급되면서 우물가에 모인 아낙들의 풍경은 사라진 과거의 풍경이 되었다. 상수도 개설은 여러 면에서 여성들의 삶을 바꿔 놓았으며 이는 세탁기의 등장 이후 가속화되었다.

상수도 개설과 소방도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확충은 한 지역의 지형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앞에서 이야기한 상수도 개설이 여성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다면, 소방도로 건설은 지역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 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들과 도시 하층민들이 정착해 살던 지역이다. 비탈진 경사면에 계획에 의한 구획 없이 그저 길나는 방향으로 판자집들을 지어 살던 곳으로 그 외형이 현재도 남아 있다. 상수도가 개설된 시기는 오래되었지만 이 일대에 전반적으로 수도가 보급된 것은 전주의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였고, 상수도 보급 이후에도 오랜 기간 우물이 사용되었다.

소방도로는 기존 덧대어 지은 집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형태의 기존 지형 때문에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건설되었다. 노인주거지역과 선미촌 일대에 소방도로가 들어선 것은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판자촌으로 덧대어 지은 집들이 대부분인 작은 골목길로 얽혀 있던 노인주거지역에 소방도로가 건설되면서 소방도로를 지나가는 길에 위치한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또한 소방도로 건설은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주를 이루던 지역을 격자형의 형태로 바꾸어 놓았으며, 도로가 난 길가에 있는 일부 건축물들은 그 형태를 도로에 맞게 개조하게 되었다.

(3) 홈플러스 입점

대형유통마트의 노송동 입점은 노송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오랜 기간 '효림롤러스케이트장'이 있던 자리에 보습학원이 들어섰고, 학원 상권의 신도심 이전으로 인해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더니 2005년 8월 11일 대형유통마트 '까르푸'가 들어섰다. 이후 '홈에버'로, 다시 '홈플러스'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홈플러스가 효림롤러스케이트장이었을 당시 이 공간은 청소년들의 장이었다. 학생들의 미팅 장소였으며, 당시 유행하던 최신 가요를 들으며 롤러를 탈 수 있는 최적의 놀이터였다. 또한 비행 청소년들의 운집소였는데 이로 인해 청소년들 간 크고 작은 싸움들이 발생하던 터였다.

현재 홈플러스 일대는 시내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대형유통마트가 들어서 있는 덕분에 많은 사람들과 차량들이 몰리는 노송동에서 가장 활성화된 공간이다.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대형마트 이용객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차를 몰고 와서 장을 보고 다시 차를 타고 떠나는 패턴의 이용객들은 홈플러스를 노송동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홈플러스의 위치와 관련해 '노송동 홈플러스'라는 말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기린로에 위치한 홈플러스', '시청 근처 홈플러스', '전주교 옆 홈플러스'라는 말로 홈플러스의 위치를 설명한다. 이는 동명이 아닌 도로나 주변 건축물과 연관시켜 홈플러스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송동의 위치를 물을 때 '홈플러스 근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홈플러스의 입점은 사람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대형유통마트의 존재가 사람들의 공간 인식 지형을 바꿔 놓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더불어 홈플러스라는 대형유통마트의 입점은 동네 근린상가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Ⅲ. 각 공간의 특징과 시간에 따른 공간 구성 변화

1. 각 공간의 특징

이 장에서는 노송동의 여러 공간들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각 공간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후 시간지리학적 관점에서 시간에 따른 공간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송동 내 TB 지역 근린에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형성된 여러 공간들이 존재한다. 이 중 특징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첫째, 노인주거지역과 근린상가, 둘째, 선미촌(집창촌) 일대, 셋째, 학교와 경로당이 그것이다.

1) 노인주거지역과 근린상가

TB 지역 내 노인주거지역은 1950년대 관자촌으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저층

주거지와 경사지가 그대로 남아 골목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구도심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구 전주역과 현 시청 근처였던 점, 가까운 거리에 중앙시장과 모래내 시장이 있어 장을 보기 편리한 점, 인근에 많은 학교들이 있었던 점은 이 지역이 과거 전주 서민들의 주요한 삶의 터전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미촌의 존재는 삶의 터전으로 이 지역을 선택하지 않게끔 하는 주요 원인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전주의 외곽지역에 신도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송동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며 이는 노송동 인구의 연령대별 노령화를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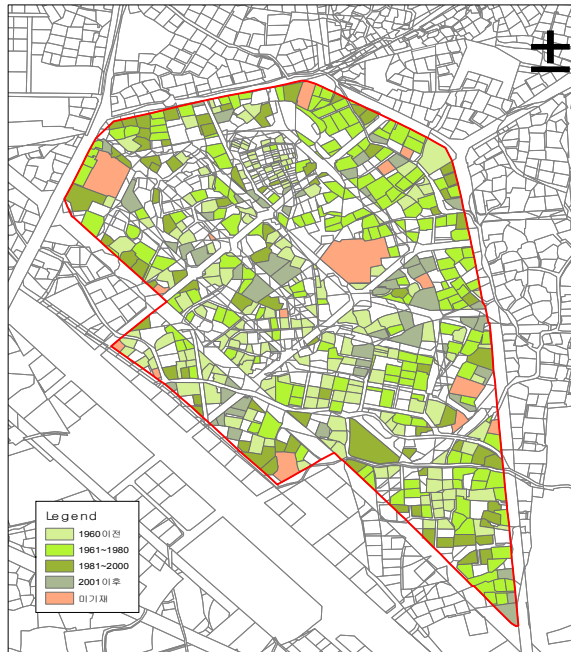
이처럼 노송동의 노인주거지역은 노인 인구가 대다수를 이루는 지역으로서 낙후된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더불어 도시계획에 의해 공간이 구획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작은 골목과 계단들로 연결된 형태로 달동네와 같은 인상을 풍긴다. 작은 골목들은 소방도로와 소방도로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도로 개통으로 격자형 도로망이 형성되기 이전 이 지역이 촘촘하게 골목과 골목으로 연결된 미로와 같은 지형이었음을 가늠하게 해 준다.

노인 인구가 절대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 지역에 근린상가가 발달하기는 쉽지 않다. 소비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고 저소비를 추구하는 노인 인구가 많은 점은 근린상권의 쇠퇴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주택가 내부에 있는 폐점한 상점들을 통해 확인된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예전에는 주택가 내부에도 근린상가가 꽤 있었다고 하나, 1998년 아중택지지구조성사업 이후 젊은 세대가 대거 빠져 나가면서 근린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가까운 인근에 큰 재래시장들이 있는 점, 2005년 대형유통마트가 들어선 점 등이 근린상권의 쇠퇴에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업종이 변경되었음에도 바꾸지 않고 내버려 둔 간판을 통해 상권이 침체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물론 현재도 노송동 TB 지역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물왕말이나 보문촌 일대에 어느 정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거대 재래시장과 홈플러스가 근처에 있기에 이들 상권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근린상권의 쇠퇴는 이 일대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가와 임대료의 하락 등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결국 지역 경제의 쇠퇴로 인한 정체 현상으로 귀결되었다.



건축물 년도 현황 <출처: 국토해양부 외 2차 2011: 350>

위의 <건축물 년도 현황>을 보면, 노인주거지역 내 주택들의 대다수가 1960년에서 1980년 사이에 건축된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층 및 2층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주택을 제외한 대다수의 주택들이 노후화된 상태로 개량 및 재정비를 요하는 상태다.

노인주거지역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폐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주택가의 경관미를 해치는 주요인이다. 폐가는 탈선 청소년들의 집합터가 되기도 하며, 유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사회적 문제와 직결되므로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송동 거주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예전에는

주변 군단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세를 얻어 사는 경우가 많았다.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신혼부부에게도 나름 인기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지역에 세를 얻어 들어오는 신규 세입자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두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선미촌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이 지역으로의 이주를 꺼린다는 점이다. 둘째, 임대아파트나 원룸 등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의 낡은 주택들이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다는 점이다.

2) 선미촌(집창촌) 일대

홍성철(2007: 118)은 일제시대 전주의 유곽과 권번이 해방 이후 미 주둔군을 위한 위안소로 잠시 변모했다가 한국전쟁 이후 성매매 여성들이 구 전주역 너머 서노송동 선미촌으로, 일부는 완산구 다가동 선화촌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한다. 선미촌은 속칭 ‘뚝너머’라 불렸는데, 당시 전주역 건너편에 뚝이 있었고 이 뚝 너머에 있다고 해서 서노송동 유리방울 ‘뚝너머’로 부른 듯하다. 구 전주역 뒤편에 있던 선미촌이 확대된 것은 1960년대 초쯤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기찻길 뒤편으로 여관이 늘어나고 막차를 놓친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행위가 늘어나면서 번창했다고 한다(ibid: 같은 쪽).

시청이 옮겨 오기 이전 그리고 기린로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전주역사 앞에서 서노송동으로 넘어가는 길은 현 코아백화점에서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 건널목과 조그만 다리를 건너 지금의 서노송동 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전주역에서 남노송동에서 내려오는 천변을 따라 올라가다 건널목을 건너 전주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그 사이는 전주역 건물과 전라선이 가로 막혀 있었고, 기찻길 너머로는 개천이 흐르고 있어서 두 지역은 서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전주역 뒤로 선미촌이 자리잡게 된 까닭도 전주역과 기찻길을 경계로 이 지역이 시내 중심부와 차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김규남 · 이길재 2001: 193~194).

언젠가부터 선미촌은 ‘뚝너머’가 아닌 ‘시청 뒤편’라 불리기 시작했다. 이는 전주역이 현 위치로 이전해 가고, 시청이 이전해 온 것과 관련된다. 주변에 시청이 이전해 오면서 시청과 관련된 명칭으로 바뀐 것이다. 번영기에는 80여개 업소에 달할 정도였으나 현재는 40여개 업소만 남아 있으며,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성매매여성의 대부분은 선미촌 내 영업소에 거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인근 원룸이나 방을 얻어서 생활한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선미촌은 주변 지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간이었다. 선미촌이 번영할수록 지역 경제는 활성화되었고, 반대로 선미촌이 쇠락하면서 선미촌 주변의 근린상가와 지역 경제가 함께 쇠락하였다. 선미촌이 번성하던 시기에 주변 미용실과 의상실은 아가씨들로 북적였고, 근처 슈퍼 및 잡화점의 수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상가들이 과거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집창촌 집중 단속으로 선미촌은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집창촌이 아닌 대체성매매 형태의 신종 매매촌 형태의 가게들이 생겨났는데 이는 선미촌과 부대 상권의 쇠락을 가속화시켰다. 이와 같이 선미촌은 그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9년에 전주시에서 선미촌을 폐쇄하고 그 자리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선미촌 처리 문제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선미촌을 폐쇄하려는 시 당국의 입장과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는 포주들 간 입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미촌 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 한 자녀를 둔 젊은 인구의 유입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불건전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지역이미지 개선이 어렵기에 도시재생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다.

3) 학교와 경로당

노송동에는 예전부터 많은 학교들이 위치해 있었다. 전주고등학교와 현 전주제일고등학교(예전 전주상업고등학교), 화재로 사라진 북중학교, 풍남초등학교, 동초등학교 등이 있었다. 전주의 도심이 확장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이전했지만, 조사지역인 노인주거지역에 한정하더라도 여전히 동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전주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 조사지역 내 학교들

- 4 -동초등학교
- 5 -신일중학교
- 6 -전주고등학교

<출처: 국토해양부 외 2차
2011: 60>

1957년 풍남초등학교에서 분리 개교한 동초등학교는 한때 13개 반을 운영할 정도로 많은 학생 수를 자랑하였다. 이는 당시 이 지역의 세대수를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나 신시가지 개발 등 전주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 현저히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현재는 한 학년 당 2개 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젊은 세대 수의 영향을 덜 받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비교적 학생 수가 많은 편이다. 2002년 인후중학교로 개교한 신일중학교와 전주의 명문 고등학교인 전주고등학교에는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

학생 수의 감소와 학군의 쇠퇴는 학교 근처의 경관에 영향을 미쳤다. 예전 학교 근처 문구점, 오락실, 학원 등 관련 상권이 발달하고 학생들로 북적북적대던 모습은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현재는 각 학교 근처에 1~2개의 문구점만 남아 있는 상태고, 학원은 대규모 학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아중리 학원 상권에 밀려 이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예전에는 이 지역에 학생들의 하숙과 자취 수요가 많았다고 한다. 이는 지역 가구의 주요 소득원으로 작용했으며, 현재도 일부 하숙집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는 원룸과 고시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 전주고등학교에 큰 규모의 기숙사가 들어선 것도 하숙 및 자취를 내 주는 가구의 소득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많은 학교들이 위치해 있어 많은 학생들로 북적거리던 당시 근린 상가도 활성화되고 가구에 실질적 소득을 가져다주던 상황은 이제 옛 일이 되었다.

오로지 노인들을 위한 공간인 경로당은 조사 지역에서 낮 시간대 가장 활성화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화투 놀이, 장기·바둑 두기, 담소 나누기, 함께 식사하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노년 인구들의 여가 시간 활용 공간이다.

조사 지역에는 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각각은 수영 경로당, 삼원 경로당, 송월 경로당이다. 삼원 경로당은 여성 전용, 수영 경로당은 남성 전용, 송월 경로당은 남녀 공용이다. 물론, 남녀 공용이라 해도 여성의 이용비율이 훨씬 높고,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 조사 결과, 경로당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없었으며, 대부분 TV를 보거나 장기나 바둑 두기, 화투 놀이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인구가 노년 인구임을 감안할 때,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TB 지역 내 경로당 분포도: H는 수영 경로당(남성전용), I는 삼원 경로당(여성전용), J는 송월 경로당(남녀공용)이다. <출처: 국토해양부 외 2차 2011: 40>

2. 시간에 따른 공간구성

도시 공간은 시간에 따라 경관과 활동 주체들의 이동 경로가 변화한다. 조사지역인 노송동 TB 지역은 비교적 단순한 시간지리학적 층위를 구성하고 있는 곳으로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 활성화되는 공간과 활동 주체들이 확연히 구분되는 곳이다. 이는 남북로를 경계로 선미촌과 노인주거지역이 구분되므로 쉽게 예측 가능하다.

중소도시의 구도심답게 비교적 단순한 시간지리학적 층위를 구성하고 있지만 조사지역의 시간에 따른 공간 구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이 지역의 공간 분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장에서는 시간대별·요일별 경관변화와 주요 활동주체들의 성격을 밝힘으로써 각 공간의 특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먼저 시간대에 따른 공간구성을 살펴보자. 전술하였듯이 조사지역은 밤과 낮의 공간이 확연히 구분된다. 낮에 활성화되는 공간은 노인주거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경로당이 가장 활성화된다. 노인들의 모임장소이자 쉼터인 경로당은 해가 뜨고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 이후에 하나 둘씩 모여드는 노인들로 채워진다. 이후 해가 질 무렵 그들은 하나 둘씩 귀가한다. 밤의 경로당은 낮과 달리 쓸쓸한 공간이 된다.

남북로를 경계로 노인주거지역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선미촌 일대는 해가 지는 시간대에 이르러서야 하나 둘씩 불이 켜진다. 이때부터 이 공간은 성매매 여성들이 유리방 안에서 한껏 치장을 하느라 분주해진다. 동시에 선미촌 성매매 여성들을 주요 고객으로 장사를 하는 미용실, 네일아트샵, 의상실 등은 한가해진다. 이 가게들은 선미촌이 활성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선미촌의 야간 활동인구에 그 일대를 내준다.

이처럼 선미촌은 밤과 낮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공간이다. 해 질 무렵부터 해 뜰 무렵까지 이 일대는 성매매 여성과 성을 소비하려는 남자들로 채워진다. 해가 뜰 무렵에는 이 인구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청소나 빨래 일을 하는 동네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이 대체한다. 출근 시간 이후부터 퇴근 시간대에 이르기까지 선미촌 일대는 주차장으로 변모한다.

이처럼 조사지역은 남북로를 경계로 노인주거지역과 선미촌 일대가 시간대별로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활성화되는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고, 활동주체들도 성격을 달리 하는 등 시간지리학적 층위에 따라 공간 분할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3> 낮과 밤의 활동주체와 활성화 공간

시간	낮	밤
활성화 공간	노인주거지역 (경로당, 학교, 선술집 등)	선미촌 일대 (성매매 업소, ATM 기계가 설치된 편의점 등)
활동주체	- 경로당: 노인 - 학교: 학생 - 선술집: 4·50대 남성	성매매 여성, 성 소비 남성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밤의 선미촌 <노컷뉴스 2011년 8월 22일> 마차 주차장 같은 낮의 선미촌

시간대별 공간 분화와 함께 요일에 따라 특정 종교인들이 조사지역 내 혹은 근처에 들어오기도 한다. 이 일대에 3개의 거대 교회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 각각은 노송교회, 동부교회, 미담교회(구 시온성교회)이다.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하는 이 교회들로 인해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리고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지역 활동 인구가 증가한다. 교회의 예배시간과 맞물려 활동 인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회에 오는 인구들이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들은 교회에서 예배나 교회 활동을 할뿐 이 일대에서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 교인들이 이 일대에서 찾는 곳은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뿐이다. 이는 기독교적 윤리관과 부합되지 않는 선미촌이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이 일대의 유동 인구만 증가할 뿐 교인들의 지역 유입이 이 일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IV. 나오며

지금까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 지역인 전주시 노송동의 공간 구성과 공간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와 같이, 무분별한 재개발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의 공간 구성과 공간적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결국 제대로 된 도시재생을 위해서이다. 한 지역의 공간성과 지역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생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전술하였듯이 전주시 도시재생 TB 지역은 거대한 도시계획에 따라 구획된 공간이 아니라, 시대적 층위를 형성하며 조금씩 조금씩 덧대어지며 지어져 있는 여러 가옥들이 하나의 군을 이루며 나름의 역사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그 안에는 이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터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으며, 결국 이들이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도 이 공간에서 일상을 영위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적 특성의 고려와 함께 지역민의 요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때, 그래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때 도시재생의 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실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청회를 개최해 일부 말하기 좋아하거나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공식적·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듣고 잘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점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놀라운 점은 그들이 요구가 정말 단순한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많은 답변이 노년 인구가 많은 지역에 변변한 목욕탕 하나 없으니 목욕탕 하나 지어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도시재생 관련 기관에서 제시하는 장밋빛 청사진보다, 사소하지만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지역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의 대부분의 인구가 노년 인구임을 감안할 때 노인들을 위한 시설 건설과 더불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결국 사람이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 관건이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노력과 더불어 지역민들의 공동체성을 회복·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다. ‘천사축제’와 같은 지역의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 축제가 그 일례인데, 중요한 점은 지역민들이 그 축제의 취지와 내용에 수궁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도시 공동체성의 회복·강화는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귀결될 것이며, 살기 좋은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회복에도 일조할 것이다. 자연스레 젊은 세대와 조용한 동네를 선호하는 중산층의 입주도 증가할 것이다. 이는 노송동 TB 지역 내 주민들의 계층과 연령 구성의 다양성을 가져오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도시재생사업단·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1, 『전주 테스트베드 기법 적용 연구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 김현숙, 2004, “지도를 통해 본 전주의 근현대 공간구조 변화”,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신아출판사.
- 김규남·이길재, 2001, 『지명으로 보는 전주 100년』, 신아출판사.
- 도시재생사업단, 2012,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 세계의 역사·문화 도시재생 사례』, 도서출판 한울.
- 변은주, 2012,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도시조직과 도시근린에 관한 분석: 제인 제이콥스가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논문.
-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 앤디 메리필드, 남청수·김성희·최남도 옮김, 2005, 『매혹의 도시, 맑스주의를 만나다』, 도서출판 서울.
-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옮김, 2011,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 제임스 C. 스콧, 전상인 옮김, 2010, 『국가처럼 보기(Seeing Like a State)』, 에코리브르.
- 홍성덕 외, 2009, 『국역 전주부사』, 전주시
- 홍성철, 2007, 『유곽의 역사』,페이퍼로드.
- Jane Jacobs, 1992,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Vintage Books.

<http://jeonju.kourc.or.kr>